

# '에너지 대전환시대 전북도가 중심'

###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로 탄소중립 실현 전북도 홍보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주제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북 안동 일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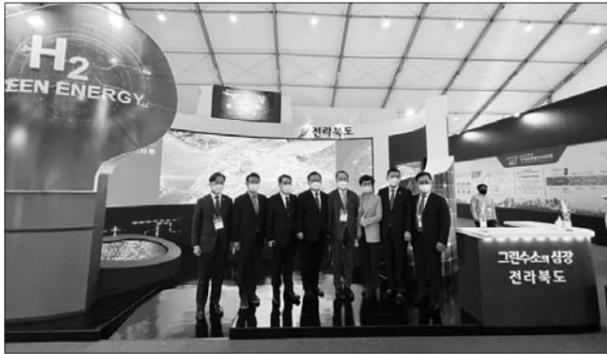
오프라인 전시관은 균형위 정책관과 17개 시·도 전시관이 안동 탈출공원에서 운영되고, 온라인 전시관(www.regionweek.kr)은 오프라인 전시관을 3D 가상전시관으로 구현해 운영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영상 중계된다.

이번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지역발전 시대를 공유하고자 대통령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산업기술평화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북이 그린뉴딜의 중심지이자,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새만금에 방점을 찍을 전략이다.

"글로벌 그린수소 Energetic City, 전북도"를 주제로 새만금의 자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북도를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도 전시관은 전북도의 핵심 동력, 즉 심장이 될 그린수소가 저장된 탄소저장탱크를 상징하는 육각 탄소결정 모형 등 헬륨이 순환하듯 동맥과 정맥의 에너지 흐름을 붉은색과 푸른색의 LED



전북도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글로벌 그린수소 Energetic City, 전북도'를 주제로 새만금의 자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북도를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로 표현했다.

중앙에 있는 그린수소의 심장이 박동하면, 그린수소와 생명의 산소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보급하는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중심지, 전북도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기초 지자체, 관계부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산업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도내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주환 센터장과 ㈜백광이에스티 최태호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을 한국조명ICT연구원 이진환 팀장과 농업회사

법인 (주)한우물, 김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람회에 참석한 조병업 도 행정부지사는 "새만금은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새만금에 국내 최대규모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태계가 새만금에서 현실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대전환시대, 전북도가 그 중심이다"라는 정책 비전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후속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전북도가 코로나19 방역 이행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7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

지급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분기별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급한다. 일평균 손실액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보장을 80%를 고려해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의 경우, 지난 20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국제성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한다.

이에,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한다. 신청은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11월 3일부터 시·군 전담창구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은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시·군 전담창구에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 담당자가 시스템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 신청·접수가 완료된다. /유호상 기자

## 도내 생태관광지 브랜드 네이밍 12개소 선정

전북도가 도내 12개소의 생태관광지 브랜드 네이밍을 선정했다. 도는 온라인 선호도조사와 마을주민,

전문가 의견을 거쳐 도내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12건의 네이밍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 생태관광지는 비단강길, 햇빛길, 달 밝음길 등 자연을 따라 걷는 지상 최고의 비단길이 연상되는 자연이 그린 '청암산 에코라운드'가, ▲진안은 마이산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잘 보존된 나의 마을을 의미하는 'My! 마이(馬耳)! 지오파크'가 선정됐다.

▲임실의 생태관광지는 왕건과 이성계의 전설이 서려 있는 것을 표현한 왕과 함께 걷다 '성수산 왕의 숲'이, ▲고창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및 운곡습지를 둘러싸고 있는 6개 마을의 특색 등 신비로움을 담은 세계가 인정 한 신비로움 '운곡탐사르스지' 네이밍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익산의 생동! 감동! 서동! '감마 서동 생태대빛', ▲정읍의 솔향 그윽한 '솔티 달빛 생태숲', ▲남원의 지리산 천년의 품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등이 선정됐다. /유호상 기자

## '옥정호' 친환경 생태관광개발 가속도

### 임실군·전북연구원, 현장 정책간담회 갖고 개발방안 집중 논의

전북도의 빛나는 보물 옥정호가 친환경 생태관광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관광도시 임실'을 앞당기고 있다.

임실군은 26일 전북연구원과 옥정호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옥정호 현장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는 김영민 부군수를 비롯한 실무 관계자와 권학남 연구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임실미래발전 2026 수정계획안'에 대한 연구원 측의 발표에 이어 군 실무부서에서 옥정호 개발방안과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생태관광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옥정호 일원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옥정호를 친환경적으로 개발에 나가기 위한 실현가능한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회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학남 원장은 "옥정호는 전라북도 핵심 수변관광 거점으로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방향설정 및 추진과제가 잘 수립되어 있다"며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더욱더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연구원과 함께 임실군만의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2~2026, 임실미래발전 2026 수정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지난 7월 마무리된 용역결과에 따르면 ▲옥정호 웰니스 치유복합공간 조성 사업(3,000억원) 등 핵심사업 22건과 ▲옥정호 스마트복합센터 구축(40억원) 등 일반사업 10건, 총 32건의 신규사업이 발굴됐다.

군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군정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옥정호 권역에는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으로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총 365억원)에 이어 ▲제2기 섬진강 에코뮤

지업 조성(총 250억원)을 추진,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섬진강 르네상스를 본격적으로 여는 시발점이 될 신비의 섬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 설치도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군은 출렁다리가 설치되고, 짙라 인까지 만들어지면 전주한옥마을 천만 관광객을 옥정호로 유입하는 등 기대 이상의 관광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붕어섬 내부 수변공원과 함께 옥정호 일대 생태관광개발 사업이 하나둘씩 단계적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심민 군수는 "전라북도가 생태문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데 옥정호가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옥정호 관광시대가 열리면 붕어섬과 치즈, 반려동물을 잇는 종합 관광도시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북도·덴마크, 해상풍력 국제협력 세미나 개최

### 친환경·지역 상생 전북형 해상풍력 모델 구축 위해 해외 사례 청취·국제협력 추진

코로나19 시대 전북도가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덴마크와 '해상풍력 국제협력' 화상 세미나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덴마크대사관 야콥 라스무센 참사관을 비롯해, 안동백 덴마크에너지청 국제협력국장, 올리 룬드버그 라스 덴마크 어민협회 대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도청, 부안·고창군청 관계자 및 지역별 어민대표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1년여에 걸친 민간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종 합의한 국내 최초 사례인 만큼, 친환경적이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전북형 해상풍력 모델 구축을 위해 해상풍력을 앞서 추진한 덴마크, 대만,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실질적인 국제협력 추진에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는 전북의 해상풍력 추진상황, 해상풍력 및 어업 공존을 위한 덴마크의 법적 체계 및 조건, 네덜란드의 해상풍력과 어업 공존방안 실증 연구 및 대만의 해상풍력 주민수용 사례 순서



코로나19 시대 전북도가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덴마크와 '해상풍력 국제협력' 화상 세미나를 26일 개최했다.

로 진행됐다.

이어, 해상풍력 추진 전반에 대해 참가자간 폭넓은 질의응답과 향후 전북, 덴마크 어민 상호 방문 등의 후속 방안도 논의됐다.

한민회 도 대외협력국장은 "기후변화 대응 등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미주, 유럽지역과의 공동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 중이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도 해상풍력 선도 모델을 해외에 알려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덴마크를 유럽 교류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아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b>모 집</b>	<b>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b>	<b>상 담</b>
<b>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b>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b>&lt; 각 지역별 모집 &gt; &lt; 누구나 학습가능함 &gt;</b>		
<b>학교별</b>	<b>주요과정</b>	<b>지역별(자유선택)</b>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b>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b> <b>※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b>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